

원효 스님 구도여정 무대에

연극 '환화여 환화여'

4월 9일~10일 부산문화회관서
일심사상에 초점 맞춰 구성

당나라 유학집에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은 뒤, 유학을 포기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간 원효 스님. 그의 파계와 득도에 대한 구도여정을 그린 이야기가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들어져 무대에 오른다. 제목은 '환화여, 환화여'다.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기간중인 4월 9일(오후 7시30분)과 10일(오후 4시30분/7시30분)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상연될 이 연극은 극단 액티스의 야심작이다.

내용은 대강 이렇다. 이상 스님과 당나라로 향하던 원효 스님은 공동묘지에서 해골에 고인 물을 샘물로 착각해 달게 마셨지만 다음날 해골물임을 알고 구역질을 한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분별심만 없으면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스님은 그 길로 유학을 중단하고 번뇌에 시달리는 중생들 속으로 들어간다. 한편, 요석공주를 되찾아온 원효 스님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알린다. 이에 원효 스님은 파계를 하지만 이 일로 더 큰 분별심을 깨닫게 되며 마침내는 중생을 위한 큰 기둥이 된다는 내용이다.

설사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 정도는 다 아는 국가대표급 일화다. 그럼 연극 내용도 뻔하겠지 생각했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다소 식상한 전체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을 주제로 한 연극 '환화여 환화여' 연습 장면

즐거리는 단지 국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건터기는 원효스님의 일심(一心) 철학이다. 하나는 곧 일체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라는 일심의 사상이다. 맑고 깊고 넉넉한 우주의 근본지리인 마음철학을 무대에 고스란히 펼쳐 보인다. 그래서 배우들은 꼭 불교라는 테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심사상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려

고민했다.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선 탄탄한 연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단측은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 캐스팅에 무척 신경을 썼다. '십이야' '피노키오' 등 다수의 작품에서 열연한 유재명씨에게 원효대사를, 러시아 스타니슬로브스키 연기학교 출신인 김민씨에게 요석공주를 맡겼다.

연출을 맡은 정순지(부산시립극단)씨는 "원효라는 매개체를 현재의 시대에 불러내 그가 남긴 일심사상을 되새기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잠시나마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불교연인인 출신인 김숙현씨가 쓴 '환화여, 환화여'의 원제목은 '회향송'으로 제 2회 한국희곡문학상 수상작이다. 대덕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원효 스님이 험벗고 굶주린 이들과 어울려 무애기를 부르며 아픔을 나누는 모습이 진정한 회향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그러다가 1999년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제목으로 바뀌었다.

귀족 불교를 거부한 채 고달픈 민중의 삶 속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살다간 원효스님의 구법정신(求法精神)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기에 '환화여, 환화여'의 빛나는 파리가 몹시 기다려진다. (051)645-3759

김주임 기자 jkim@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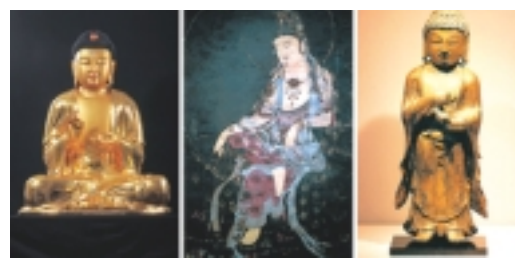
부처님 우리 곁에오셨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3월 27일~5월 24일

고귀한 자태와 화려한 색조를 자랑하는 국보 및 보물급 불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3월 26일 문을 여는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기념으로 27일(부처님 출가일)-5월24일(부처님 오신 날)까지 '佛(부처)'을 주제로 여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과 불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낸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전시되는 유물은 모두 120점. 이중 국보와 보물 16점과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비로자나불 입상 등 일본에서 빌려온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우선 국보로는 대구국립박물관에서 대여한 '금동불입상' (제182호), 청주국립박물관에서 빌려온 '계유명전사이미타불입상' (제106호) 등이 있다. 보물로는 '영탑사금동삼존비로자나불입상' (제409호), '약사불입상' (제 328호), '수월관음도' (제 1332호), '영산회상도' (제 1397호) 등 13점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알려진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 15세기에 제작된 용문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 창원 백월산 남사 소장 '반가사유상', 수증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크기 표정이 재각기 다른 높이 10cm의 '금동다발' 12점 등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성보문화재도 이번엔 만날 수 있다. 이중 '반가사유상'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어서 관람객들의



(왼쪽부터)목조아미타불좌상, 수월관음도, 비로자나불입상.

시선을 향동안 고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관전은 무엇보다 일본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주요 불교문화재 3점도 감상할 수 있다.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금동비로자나불입상' (높이 52.8cm, 9세기)을 비롯해 고려미술관 소장 '처성광불회도', 나라 호린지(法輪寺) 소장 '관경심육관변상도' 등을 국내 최초로 일본에서 대여해 왔다.

특히 1569년에 제작된 '처성광불회도'는 처성광여래(불교에서 복극성을 부처로 바꾸어 부르는 이들을 그린 조선 불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 이 세 점 모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납업자인 오쿠라가 약탈해 보관하다가 1982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일명 '오쿠라 컬렉션' 유물들이다.(02)2011-1060-5 김주임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⑥



그림: 이상재 화백

설악산 계조암

장인성 시인

설악에 올라 계조암을 물었다니
비위돌을 가리키며 비위 속에 있다 하네
둘러보면 모두가 비위 뉘엔데
비위 속에 들어 앉아 비위굴을 찾느라고
고사목이 우지끈 죽비(竹)를 치네.

계조암(繼祖岩)-설악산 흔들바위 밑에 있는 석굴암자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어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전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제 불이 호위하시며 세세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 하였다.



佛寶法象道(보법상도)역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역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역자는 집안에 가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사귀는 사람의 건강이 염려되면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역자를 구하여 집안에 길드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몸살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병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 ◎소재: 팔 배 - 고급 무늬목재
-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 ◎규격: 45cm x 45cm ◎보급가: 20만원

달라이라마 예증 림마돌체라마 린포체 친견법회

(국제보살계 · 마정수기 · 합동조상천도제)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티벳승왕 달라이라마님께서 공식 인정하신 림마돌체라마 린포체님의 맑은 영혼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중불교문화원, 해외여행사(해외불교성지순례전문) 011-229-1068
(사)전국불교체육인연합회 054-464-4735, 010-4802-5288, 010-3933-97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극락사 054-535-1669, 016-9281-1666

협찬: 한국불교사암 총연합회
후원: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전통 조계종

※탱화 및 목불상 조성을 원하시는 사찰은 네팔에서 특별히 제작하여 아주 싼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⑤

다양한 활동 속 발전 발판 다져

1960년대 - 1970년 ②

윤문 스님은 랑송일씨와 김정목 포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찬불가를 정리하고 1956년부터 직접 제작한 찬불가 87곡을 '언니노래' '동생노래' '애기노래' '의식노래' 등으로 분류하여 편찬했다.

이렇게 노력하는 스님을 본 불자들은 오르간을 기증하고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연습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반지를 팔아서 난로를 마련하여주기도 했다. 1963년에는 한 불자가 피아노를 기증했다. 당시에는 피아노가 상당한

1960년대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불교음악계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윤문 스님이 '불교동요집'에 머리말을 통해 밝힌 이야기를 들어 보자.

"이 불교동요는 어린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씩씩하고 건전하게,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노력한 끝에 이 조그만 책자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어린이로서 좀 더 뜻있게 배우고 재미있게 자라기 위하여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과 흥겨운 노래를 하나 하나 모아서 엮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조그만

윤문 스님 찬불가 87곡 분류 편찬

1968년 불교계 최초 교성곡 연주

급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필요했다. 연습실에 피아노가 없어 안타까워하자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한 불자가 계약금을 내주고 나머지는 윤문 스님이 완납한 것이다. 윤문스님은 이해할 하모니카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작곡도 하고 전국의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모니카 반주에 맞추어 찬불가를 지도하고 의식 때마다 찬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셨다.

1968년에 종립학교인 대한 보문고등학교에서는 브라스밴드와 합창단이 불교계의 최초의 교성곡인 '화엄회상'을 연주했다. 종단협의회 연구 발표 곡으로 선정되어 작곡가 최영철씨가 작곡하여 직접 지휘했다.

동요집이 어린이 여러분의 착한 빛이 연습실에 피아노가 없어 안타까워하자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한 불자가 계약금을 내주고 나머지는 윤문 스님이 완납한 것이다. 윤문스님은 이해할 하모니카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작곡도 하고 전국의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모니카 반주에 맞추어 찬불가를 지도하고 의식 때마다 찬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셨다. 1968년에 종립학교인 대한 보문고등학교에서는 브라스밴드와 합창단이 불교계의 최초의 교성곡인 '화엄회상'을 연주했다. 종단협의회 연구 발표 곡으로 선정되어 작곡가 최영철씨가 작곡하여 직접 지휘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한국의 불교미술' 강의 삼성박물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은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강의를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27일 '석굴암-신라의 이상적 신체미' △4월 3일 '삼국유사에서 찾는 신라 불교미술의 꽃' △4월 10일 '불교공예품과 사리장엄구-불꽃 속에 피어난 깨달음의 정화' △4월 17일 '현장학습 △4월 24일 '한국 범종의 특징과 변천-중생제도의 원유' 순으로 진행된다.www.ljeum.org 김주임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 이상 구매시

서명보이차에서

선물로 드립니다

2008개 한정

瑞榮普洱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